곡성군 고향사랑기금 10억원 돌파

11억 6000만원…목표 금액 초과
'소아과 선물' 3억원 초과 달성
소아과 개설 3000여명 진료 성과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올해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목표 모금액인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곡성군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의 진료 모습.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의 2026년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목표 모금액인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곡성군 고향사랑기금 전체 모금액이 당초 목표였던 1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은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곡성군은 2024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1을 통해 출장진료 형태의 소아과 진료를 처음 도입하며, 의료 접근성이 취약했던 지역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출장진료는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소아과 상시진료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곡성군은 2025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2를 본격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진료 전환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 3억원을 달성했고, 실제 소아과 개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문을 열며, 지역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됐다.

상시진료 도입 이후 소아과 이용 실적과 군민 만족도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7개월간 누적 진료 인원은 3000여 명에 달했으며, 이는 곡성군 소아·청소년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의 진료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0~6세 영유아의 소아과 방문율이 개설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영유아 건강관리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곡성군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약 11억 6000만원으로, 연간 목표 모금액이었던 10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를 비롯한 지정기부사업이 기부자의 공감을 얻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을 위한 3억원 모금 달성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필수의료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에 공감한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이 실제 의료 서비스로 환원되며, 기부와 정책 성과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도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비롯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빨래방 사업은 1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곡성군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광양시, 수도작 드론 방제·비료 살포 지원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시가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2026년도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총 1166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중 신청을 받은 후, 병해충이 집중 발생하는 7~9월에 드론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와 비료 살포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ha당 6만원 이내다.

올해는 신청기관과 시기가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방제 업체가 5월 중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다른 벼 재배 관련 사업과 신청 시기를 맞추고 사업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관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미자 광양시 스마트원예과장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는 신청 시기와 장소가 변경된 만큼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 방제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회천면여성자원봉사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보성 회천면여성자원봉사회가 최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금 300만원을 회천면에 기탁했다. 〈사진〉

이번 성금은 회천면희망드림협의체에 지정 기탁돼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회천면여성자원봉사회 최양님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누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 해창만 굴축제 성료…겨울 미식축제 출발 알렸다

6000여명 제철 맞은 굴 맛 체험

지난 3일 고흥 포두면 해창만 오토캠핑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해창만 고흥 굴 축제가 6000여명의 방문객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회 해창만 고흥 굴 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3일 고흥 포두면 해창만 오토캠핑장 일대에서 '바다의 시간, 고흥의 맛'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하루 6000여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굴 산지 직판과 굴 미식 체험,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흥 굴의 경쟁력과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축제는 고흥 굴을 중심으로 한 겨울 미식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굴찜·굴구이 스페셜존을 비롯해 향토음식 '피굴', 굴 요리 10종 미식존, 셰프 시연 및 무료 시식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방문객들은 해창만 바다에서 나는 제철 굴의 깊은 맛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고흥굴생산자협회와 함께 운영한 스페셜존 '굴막포차'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미식존 '바다마루'는 '산지에서 바로 맛보는 굴 축제'라는 콘셉트를 분명히 보여주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굴 요리와 함께 고흥 특산물, 지역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장이 마련돼 고흥 굴의 가치와 지역 자산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축제는 굴 소비 촉진과 산지 직거래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거뒀다. 스페셜존과 미식존에서 준비된 1800㎏ 규모의 굴이 개장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전량 소진되며, 현장 수요가 당초 예측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 송광사 경유 보성~서울 버스 노선 개통

관광객·탬플스테이 편의성 향상

송광사 중간정류장.

순천 송광사 경유하는 보성~서울 시외버스 노선이 개통됐다.

순천시는 지난 2일부터 보성에서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로 운행 중인 시외버스가 송광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개통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성~서울 시외버스 노선은 운행 경로상 송광사를 지나면서도 정류장이 없어 무정차 통과해 왔다. 이로 인해 송광사를 찾는 서울·수도권 인근 관광객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은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추가로 시내·농어촌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송광사 경유 노선은 지난해 11월 정류장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12월 준공해 하루 두 차례 매일 운행되며, 보성에서 출발해 벌교, 송광사, 옥과 등을 지나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까지 운행된다.

해당 노선이 송광사를 경유하게 되면서, 관광객과 템플스테이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월 2일 노선 개통에 따른 개통식이 송광사 스님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진행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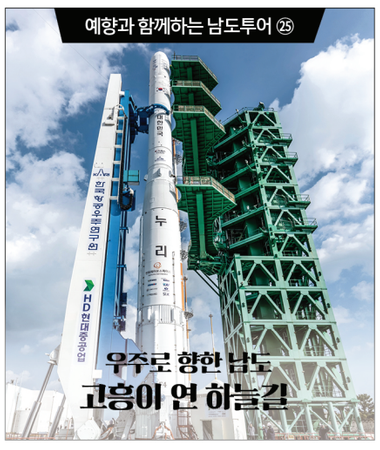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6년 1월호

2025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 화제
전라도와 낭트의 교류 이끄는
광주 출신 거문고 연구자 이정주씨

복합문화공간, 도시 미래가 되다⑤
대구 오페라하우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와
'오페라 페스타' 성공 주역

호남의 누정시즌2⑦-장성 백화정
대학자 김인후의
학문과 충절,
백화로 피어난 정자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⑦
화폭에 담은 남도정서
오지호·임직순의 감흥회화